

‘판짓 고수’ 물리학자의 판짓

이기진 교수, 광주 롯데갤러리 이달까지 ‘과학자의 만물상’ 전
골동수집품·로봇·가수 씨엘과 ‘파리 부녀 여행’ 그림 등 선봬



도자기 로봇.

물리학자 이기진(서강대 교수)은 예술적 발견이 물리학적 영감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판짓 고수’인 그는 바이어 물리학 연구 뿐 아니라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로봇을 만들고, 세상의 온갖 물건을 수집한다. 그가 만든 로봇은 딸인 가수 씨엘이 등장하는 2NE1 뮤직비디오에도 모습을 보였다.

롯데갤러리광주점(롯데백화점 11층)은 여름방학을 맞아 ‘과학자의 만물상’전(31일까지)을 연다. 창의적이고 상상력 가득한 공간에 초대받은 듯한 이번 전시는 아이도, 어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획이다.

그의 서강대 연구실 한공간처럼 연출한 이번 전시 키워드는 세 가지다. ‘수집’, ‘파리’, ‘로봇’. 과학적, 예술적 영감이 되는 ‘골동수집’이 단초가 돼 다양한 그림, 로봇 조각 작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전시장에 재현한 이번 기획에서는 그림 70여 점, 로봇 시리즈 500여 점, 골동수집품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그가 수집한 물건은 거창한 게 별로 없다. 구두솔, 빗자루, 호치키스, 미피 인형, 오래된 그림책, 칼, 시장 바구니, 빵 등 온갖 잡동사니를 아우른다. 수집품은 그림으로 직결돼 상상력 넘치는 재미난 작품으로 구현된다.

파리 그림들은 딸 씨엘과 떠난 여행에서 만난 즐거운 일상을 담았다. 즉흥적이고 단순한 선과 색 위에 워트를 담아 사랑, 휴



‘I love Paris’와 ‘딸과의 여행’(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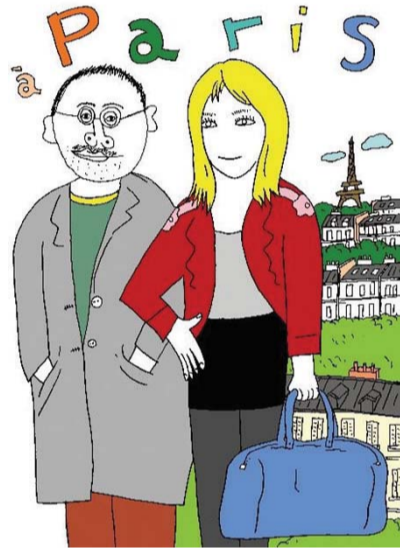
식, 낭만,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풀어 냈다.

두 딸을 위해 처음으로 그려준 동화 ‘박치기 깡깡’에 등장했던 로봇은 지금은 이 교수 곁에서 그림책이나 웹툰 캐릭터, 로봇 조형물, 아트상품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도자기로 만든 로봇 조형물과 아트 상품들은 루브르 박물관 아트숍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전시에서는 로봇을 주제로 한 대형 로봇부터 10cm 소형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1-180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니다”

수필가 오길순 출판금지 소송 패소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사진) 내용이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경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11일 오씨가 신경숙씨와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

상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발표한 5쪽 분량의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과 1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오씨는 ‘사모곡’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은 이야기

를 썼다. 엄마를 잃어버린 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이 엄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엄마를 부탁해’가 주제와 줄거리, 사건 전개 방식 등에서 ‘사모곡’과 유사하다고 오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작품에 등장하는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유사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세월호 직립 준비’

‘공사장 작가’의 독특한 시선

광주 515갤러리 27일까지 박성완 초대전

서양화가 박성완 작가는 ‘공사장 작가’로 불린다. 일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공사 현장을 자주 그려와서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은 수년간 화폭에 담기도 했다.

젊은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기획전을 여는 515갤러리(광주시 남구 양림동)가 올해 첫 주자로 서양화가 박성완작가를 초대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도시의 낯선 기억’이다.

무엇보다 박 작가 그림에서 눈에 띄는 건 독특한 ‘시선’과 강력한 기운을 전하는 투박한 붓터치다. 그의 화폭에 등장하는 도시 풍경들은 낯익으면서도 낯설어 색다른 느낌을 전달한다. 대

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늘상 마주치는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나무가 늘어선 문화전당 앞, 망월동 구묘역 등 도심 곳곳에서 그가 잡아낸 구도는 신선하고 거기서부터 구현된 작품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시작들은 세월호, 망월동, 제주강정, 공사장, 동네의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 포클레인이 등장하는 도로 공사 현장, 전기 공사가 한창인 풍경, 세월호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포착한 장면들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 도시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되돌아 보게 한다.

그의 붓질은 거칠고, 간결하며, 과감하다. 정제되고 세련된 느낌은 부족하지만 오히려 빠르게 움직이며 만들어진 대담한 터치와 다소 모호하고 간략화한 형태들은 훨씬 강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특히 다채로운 색감의 배열은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내며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거쳐 같은 학교 대학원 서양화 전공 석사 과정을 수료한 박 작가는 어동미술제 대상 수상했다.

한편 박작가의 작품은 오는 17일까지 국운미술관에서 열리는 ‘무등산에 드리운 예술의 무지개’전에서도 다수 만날 수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광주 소암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다. 문의 062-654-3003. /김미은 기자 mekim@

3인 3색 20년지기들의 화음

이중현·강창련·이동혁 15일 예술마루

‘3인 3색 콘서트 우정(Friendship)’가 오는 15일 오후 5시 여수 GS칼텍스에울마루에서 열린다.



이중현



강창련



이동혁

이번 공연은 여수출신 성악가인 바리톤 이중현을 중심으로 20년지기 친구들인 테너 강창련, 베이스 이동혁이 꾸민 우정콘서트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바리톤 이중현은 재능기부가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역 노숙인 자활과 자립을 돕고자 결성된 ‘노숙인 채움 합창단’에서 단장과 지휘자로 6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테너 강창련은 이탈리아 베르디 국제콩쿠르 3위 입상 및 테너 특별상 수상자로 이탈리아, 독일을 중심으로 ‘토스

카’, ‘리콜레토’, ‘카르멘’ 등 다수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다. 베이스 이동혁은 현재 독일 테사우 오페라극장에서 전속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로 알려졌다.

공연은 가곡, 오페라아리아, 라틴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됐으며 소프라노 김경란, 피아노 김소영, 여수 소호초등학교 타악 앙상블 학생들이 특별출연한다. 문의 010-4803-745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극단 토박이

‘어린이 연극학교’ 개강

8월1~15일 민들레 소극장

극단 토박이는 ‘제25회 신나는 어린이 연극학교’(이하 연극학교)를 8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예술의 거리 민들레 소극장에서 연다.

토박이는 연극의 대중화와 교육적 효과를 위해 연극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연극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10시30분에 진행된다.

학생들은 연극놀이를 통해 발음훈련, 신체훈련, 집중력 훈련, 상상력 훈련, 감각훈련 및 연기훈련 등을 배울 수 있다. 연극학교는 작품 실습과 발표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문의 062-222-6280, 010-3625-393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